



LED 조명제품 부실 생산업체 '제재'

규격미달률 11.8%에 달해 ... 쇼핑몰 거래정지 · 점검결과 수요기관 제공

공공기관 납품이 늘고 있는 LED 조명제품의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LED 조명 2개 제품(실내조명등, 다운라이트)에 대해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 생산업체가 납품한 153개 제품 중 11.8%인 18개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으며,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하였으며, 품질점검 결과를 12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 나라장터 '수요기관 업무' - '물품' - '품질점검 결과정보'에 게재

이번 점검대상 제품들은 KS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품의 필수기능인 '광효율'과 '초기광속' 시험 항목에서 규격미달이 다수 발생(72%, 13건/18건)하였으며, 이는 핵심부품인 LED 소자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 노력이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 초기광속은 100시간이 지난 후 광원으로부터 방출되어 눈에 감지되는 광선의 총 출력량이며, 광효율은 광속을 전력소모량으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

또한, KS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은 충족하였지만 제품성능을 과장하여 계약규격서에 표기한 경우도 적발되었다.

이상운 품질관리단장은 "비록 정부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았지만, 납품단계에서 불합격이 상당수 발생하므로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부실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증기관과 점검결과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